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5. 30.(화) 11:00,
(지면) 2023. 5. 31.(수) 조간

배포 2023. 5. 30.(화) 06:00

여름 휴가철 앞서 전국 마리나 사업장 242개소, 마리나선박 257척 안전점검 시행

- 6. 1.~6. 30.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마리나선박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.

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 증가로 충돌, 기관고장 등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이며, 태풍·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

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, 보관·계류업, 정비업 등 총 242개 사업장과 257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,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.

특히,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,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자격보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, 기상악화에 대비한 피항계획 및 재난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‘바다 내비게이션 앱’의 사용을 독려하고, 출항 전 안전점검 사항과 레저선박의 주요 사고사례를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하여 종사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.

* 선박의 충돌·좌초 경보, 실시간 전자해도, 기상·항행정보 등을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철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마리나선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”라며, “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권영규 (044-200-5250)
	해양레저관광과	담당자	사무관	김상국 (044-200-5275)

□ 추진배경

- 여름철 마리나선박 이용객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 및 태풍·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마리나업 안전점검 추진

□ 추진계획

- (기간) '23. 5. 22(월) ~ 6. 30(금) / 6주간
 - * 온라인 점검표에 따른 사업자 자체점검(5.22~5.31) / 선박·사업장 현장점검(6.1~6.30)
- (대상) 마리나선박 대여업, 보관·계류업, 정비업체(총 242개소 257척)
 - 자체점검 결과, 사업체 규모, 현장여건 고려 선별 현장점검

등록구분	부산	인천	여수	마산	울산	동해	군산	목포	포항	평택	대산	제주	합계
대여업	66	6	22	38	2	11	2	5	5	30	-	6	193
선박(척)	77	12	30	60	3	17	3	7	6	35	-	7	257
보관·계류업	5	2	7	15	-	5	1	1	-	4	1	3	44
정비업	3	-	-	-	-	-	1	1	-	-	-	-	5

- (점검반) 각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(주관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검사원 등으로 구성
- (주요내용) 사전·현장 점검을 통한 마리나선박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계류·보관시설 등 점검, 종사자 안전제도·홍보 등

<중점 관리방안>

- ▶ (점검관리)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행정처분, 미비·결함사항은 시급성·중요성을 고려하여 시정요청 및 후속조치 관리
- ▶ (홍보·제도) 레저선박 해양사고사례 공유, 출항 전 안전점검 및 승객 승선기록 관리 (마리나정보시스템 활용) 안내, 사고대응 요령('바다내비' 앱 사고신고 기능) 전파

□ 추진 일정

- 점검계획 알림(자체점검, 합동점검 참여협조 등 요청) : 5. 17.(수)
-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: 6. 1.(목) ~ 6. 30.(금)

참고 2

마리나업 등록 계류장 및 안전점검 사진(2022)



마리나업 등록 계류장(통영)



마리나업 등록 계류장(거제)



구명설비 점검



선박 안전점검